

“만리장성 넘어 단체전 패배 씯겠다”



유승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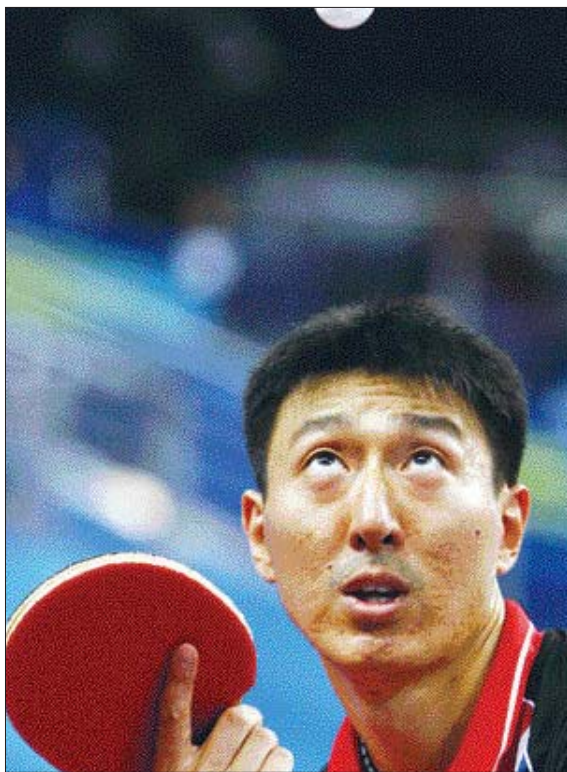
유승민·오상은 개인전 출전 왕하오·마린 상대 필승 결의



만리장성에 막혀 2008 베이징을
림픽 탁구 남자단체전 동메달에 그
친 유승민(26·삼성생명)과 오상은
(31·KT&G)이 설욕에 나선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
트 유승민과 2005년 상하이 세계선
수권대회 3위 오상은은 21일 첫 경
기를 벌인다.
중국과 단체전 준결승 0-3 패배 후 패자전으로 밀려 동
메달을 건진 유승민과 오상은은 4강 길목에서 세계 최강
자 왕하오, 세계 2위 마린과 외나무다리 대결이 불가피하
다.
세계랭킹 8위 유승민은 ‘숙적’ 왕하오와 단식 8강 대결
이 예고돼 있다.
유승민은 중국과 단체전 4강 때 2단식에서 나섰지만 왕하
오에게 1-3(7-11 11-6 9-11 6-11)으로 달미를 잡혔다. 아
테네올림픽 결승에서 4-2로 꺾고 금메달을 딴 뒤 열 한 차
레 대결에서 모두 저 상대전적 2승1패로 절대 열세다.
하지만 단체전에서 팽팽한 승부ろ 자신감을 얻은 유승
민은 설욕을 버리고 있다.
유승민은 “왕하오가 생각보다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번타법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다. 단식은
단체전과 달리 내 자신에게 책임지면 되기에 후회 없
는 경기를 하겠다”면서 “대회 2연패를 위해 이번에는 왕
하오를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유승민은 왕하오와 8강에서 만나려면 32강 대결이 예
상되는 고라이차(중국·30위), 16강 상대로 점쳐지는 디
미트리 오브차로프(독일·14위)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고라이차는 지난해 9월 양저우 아시아선수권대회
8강에서 빼어난 4-0 패배를 안겼던 만큼 안심할 수 없다.
‘만형’ 오상은(15위)도 이번타법의 ‘고수’ 마린이 준결승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오상은은 단체전 4강 때 1단식에서 마린과 폴세트 접전
끝에 2-3으로 아깝게 졌지만 이번 단식은 승리를 내줄 수
없다는 각오다. 8강까지 가려면 오상은은 유럽의 강호 티
모 볼(독일·6위)과 16강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
여자 에이스 김경아(대한항공·11위)도 결승 진출을 무
산시켰던 싱가포르 에이스 리자웨이(6위)와 8강에서 맞
붙을 공산이 크다.



왕하오



오상은



마린

■ 메달 딴 태극전사들 뭐하고 있을까?

가족·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베이징 관광

폐막식까지 자유 시간 박태환은 두문불출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
수들이 요즘 올림픽 선수촌에서 오래간
만에 편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
내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메달리스트 모두 24일
폐막식까지 베이징에 남아 있다가 동시
에 귀국하는 일정을 잡아 놓아 경기를
마친 같은 종목 동료들이 귀국한 뒤에도
메달리스트들은 선수촌에 남아 있어야
한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따
낸 이용대(20·삼성전기)는 경기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쇠도하고 있는 방송
인터뷰 요청에 응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20일께나 베이징 시내 구경도 나
가 볼 예정이다.
펜싱 경기를 모두 마친 대표팀을 돌려
보내고 혼자 남은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27·서울시청)도 라디오 방송 등에 출
연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격에서 금메달을 딴 진중오(29·

KT)는 자신을 응원하러 베이징에 온 부
인 권미리(26)씨 등 가족들과 함께 베이
징 시내를 관광하면서 오래간만의 여유
를 즐기고 있다.
장미란(25·고양시청)은 세계신기록
보유자답게 어느 선수보다 많은 방송 출
연과 인터뷰 요청이 몰려들고 있지만 이
를 모두 고사한 채 차분하게 휴식을 취
하고 있다.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23·강원
도청)은 경기가 끝난 지 1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훈련을 시작했다.
반면 한국 수영 첫 금메달을 따며 역
사를 새로 쓴 ‘마린보이’ 박태환(19·단
국대)은 선수촌에서 외롭게 두문불출하
고 있다. 수영대표팀 동료들은 지난 19
일 귀국했지만 수영에서 유일한 메달리
스트인 박태환은 혼자 무료한 시간을 보
내고 있다.
대표팀 동료들은 텐안먼 광장 구경을
갔지만 자신만 빠졌다. 기분도 우울한
데다 몸도 안 좋아 자신을 알아보는 팬
들의 사인요청도 미소로 대하기 힘들 수
도 있다고 판단, 선수촌에서 음악을 벗
삼아 외롭게 지내고 있다.



올림픽 소식

김도희 코치, 장미란 금 위해 무릎수술도 미뤄

연골 닳아 걷기조차 힘든 상황

○한국 여자 역도 대표팀의 김도희(34)
코치가 무릎 수술까지 미뤄가며 2008 베이
징올림픽에서 대표팀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한 것으로 알려져 잔잔한 감동.
김 코치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 걷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
는 의뢰진의 권고에 “지금 안된다”며 시
기를 미뤄왔고 결국 장미란(25·고양시청)과
윤진희(22·한국체대)가 금, 은메달을 각각
따내는 등 한국 여자 역도가 역대 최고의 성
적을 내는 데 큰 힘.
“펠프스 1천억원 벌 수 있어”
○수영 뿐만 아니라 올림픽 역사까지 새
로 쓴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23·미국)
가 앞으로 1억달러(약 1천억원)의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전망.
펠프스의 에이전트 피터 칼리슬은 19일
(한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펠프스가 광고 및 후원 계약으로 1억달러
를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혼계영 400m 우승과 동시에 8
관왕을 달성하며 2008 베이징올림픽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펠프스는 이미 500만 달러
(약 52억원) 가량을 벌었고 수영용품 브랜
드 스피드, 힐튼 호텔, 올림픽 공식 기록 계
측업체 오메가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

는 펠프스는 앞으로 더 큰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국선수단 25일 귀국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선전을 거듭
하고 있는 한국선수단은 폐막식 다음 날인
25일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탑승, 귀
국길에 올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할 예정.
선수단은 공항 도착 후 입국장에서 간단
하게 합동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세종문화회
관으로 이동해 해단식을 갖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도보로 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이동해 ‘환영 국민대축제’
에 참석할 계획.

류상 상해보험금 152억원

○중국 최대 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평안
(平安)보험이 2008 베이징올림픽 육상 남자
110m 허들 예선에서 부상으로 뛰어보지도
못한 채 기권한 ‘육상 영웅’ 류상(25)에게 1
억 위안(약 152억원)의 상해보험금 지급 여
부를 놓고 고민.
평안보험은 지난해 7월 베이징올림픽에
나서는 중국 선수단 전원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면서 류상에게는 특별히 1억 위안의
보험증서를 별도로 챙겨줘 류상의 부상이
사고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1억 위안을
깜짝없이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

“폐막식 현장 리허설 없이 진행”

차이내데일리지 보도

16일간의 지구촌 최대 축제를 마무리하는
2008 베이징올림픽 폐막식(8월24일)은 별
도의 현장 리허설없이 진행된다고 중국 관
영 영자신문 차이내데일리가 19일 보도했
다.
신문은 24일 남자 마라톤이 정오께 끝나
면 폐막식까지 8시간 밖에 남지 않기 때문
에 메인 스타디움인 쿼터위창(國家體育場)
에서 폐막식 리허설을 진행하지 않으며, 그
에 따라 폐막식에 포함된 8분 분량의 2012년
런던올림픽 관련 프로그램 역시 현장 리허
설없이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폐막식 준비팀들은 쿼터위창에서

떨어진 별도 장소에서 리허설을 진행할 예
정이다. 앞서 개막식(8월8일)을 앞두고는 7
월30일과 이달 2일, 5일 등 세차례 걸쳐 관중
입회 하에 현장 리허설이 진행됐다.
개막식에 이어 다시 장미란이 감독이 연
출을 맡는 폐막식에는 개막식때 선보인 대
형 지구 모형과 전자 두루마리가 재등장하
지 않는 대신 무슬라오 학생 350명의 쿵푸
시범과 장수(江蘇)성 출신 연주자 60명의 중
국 전통악기 ‘얼후’ 연주 등이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장미란 감독은 이날 초 “폐막식 프
로그램의 절정은 성화가 꺼질 무렵이 될 것”
이라며 “작별 인사를 하고, 4년 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것이 폐막식의 메시지”라고
소개한 바 있다.



세계 최고의 철인을 향해
19일 베이징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장에서
이 수영경기를 위해 물에 뛰어든 선수들
/연합뉴스

■ 오늘의 올림픽

◇20일(한국시간)

- ▲야구 = 한국-네덜란드(12시30분·우커
송 야구장)
- ▲핸드볼 = 남자부 8강전 한국-스페인
(21시15분·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 ▲

- 하키 = 여자부 순위결정전 등(9시30분·올
림픽그린 하키경기장)
- ▲탁구 = 남녀 단식(11시·베이징대 체육
관)
- ▲레슬링 = 남자 자유형 66.74kg급 정영
호·조병관 출전 (10시30분·중국농업대 체
육관)

“장한 ‘전남의 아들’ 이용대 어서오라”

화순군 대대적 환영식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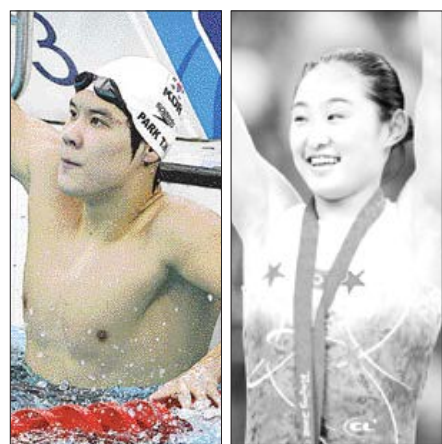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
메달의 주인공 이용대 선수의 고향인 화
순에서 이 선수에 대한 환영식을 준비중
이다.
화순군은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
합복식 경기에서 이효정과 짝을 이뤄
12년만에 금메달을 딴 이용대 선수에
대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이 선수 환영

식은 화순읍 만연리에 사는 이자영
(50), 이예자(47)씨 등 이 선수 부모를
비롯해 군내 각급 기관·단체장, 군내 10
개 배드민턴 단체 동호인, 군민, 공무원
등 모두 50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환영식 날씨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 해단식 등 일정을 바가며 확정
할 계획이다.
또 이 선수가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했
던 화순초등학교를 비롯해 화순중, 화순
실업고 등 이 선수의 모교들도 환영식을
갖기로 하고 일정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을 준비중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에는 박태환 북한에는 홍은정”

중 언론 두 동갑스타에 관심

“한국에는 박태환, 북한에는 홍은정”
중국 언론이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
달을 획득, 일약 스타로 부상한 남북의 두 동
갑내기 10대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
다.
중국의 인민일보 웹사이트는 19일 “한국
에 박태환 효과가 출현했다”는 제목의 기사
에서 “박 선수의 금메달 획득 이후 한국에서
수영을 배우려는 붐이 일고 있으며 수영 강
습반에도 수강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
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5살 때 전신 치료와 신체 건
강을 위해 의사의 권의로 수영을 시작한 박



박태환 홍은정

선수가 올림픽 수영 챔피언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신문은 여자 체조 도마 종목에서 북한에
이번 대회 두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홍은정
선수를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선군조선의
믿을직한 딸”로 극찬한 사실을 전하면서
“홍 선수의 올림픽 참가가 이번이 처음이었
지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
만해 있었다”고 소개했다.